

##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현 미 <sup>†</sup>	방 희 정	소 유 경	옥 정	김 은 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 차병원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158명과 여자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남녀 집단에서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이 어떤 차이와 상관을 보이는가를 살펴 본 결과, 각 변인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 집단에 비해 남자 집단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구조방정식에 근거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녀 두 집단에서 심리적 안녕감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에 따라 제안된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비교하였더니, 남녀 집단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또한 남자 집단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여자 집단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

<sup>†</sup> 교신저자 : 김현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E-mail : wisemi27@hanmail.net, Tel : 031) 380-3754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부의 축적과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잃었으며 심리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반기를 들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2006).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행복추구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였다. 삶의 질이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해 웰빙 열풍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웰빙 바람이 불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며, 자연스레 행복, 삶의 질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심리학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해 왔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Diener & Diener, 1995: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Ryff (1989)는 주관적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발달과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경험하는 성숙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지지적인 관계망, 일과 여가 활동에의 몰입, 목적이나 희망과 같은 개인적 특성(traits)들을 중요시한다(Myers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R. & Smith, 1999). 이는 개인이 자기 자신, 타인,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응 양상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어, 자아해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Mrakus와 Kitayama(1991)는 자아해석을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구분하고 자아해석이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은 이 두 가지의 자아해석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자아해석 양식은 문화간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내 변산 연구에서도 유효한 분석틀로 개인의 심리현상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자아해석은 동일 문화권 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성차가 나타난다고 볼 때(Eagly, 1987), 성별에 따라 자아해석 양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여자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세하다고 하였으며, 자아해석이 심리적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서, 인지, 행동 등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Cross & Madson, 1997). 그렇다면 관계를 중시하고 급속히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는 한국 문화에서는 과연 성별에 따라 자아해석 양식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특히 성별에 따라 자아 해석 양식이 심리적 기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들이 충분하지 못해 성별이 이들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디지털 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자아해석 양식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고 남녀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 자아해석 양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독특한 특성·태도·목표·신념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맥락, 대인관계, 집단 소속감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타인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집단과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친밀한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이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을, 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독립적 자아해석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있어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은 덜 중요하며, 자신의 독특성과 개별성에 초점 맞춘 정

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내적 특성을 표현하고 독특함을 나타내는 과제를 수행할 때 내적 동기가 유발되며, 이를 성취하였을 때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보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한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고 변화 가능한 자아구조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역할, 집단 소속감,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아와 관련된 정보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타인의 정보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친밀한 타인에 대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교화시키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관계를 잘 맺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고양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아구조를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개념을 집단주의와 관계성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ashima, Yamaguchi, Kim, & Choi, 1995; Baumeister & Sommer, 1997; Cross, Bacon, & Morris, 2000; Gabriel & Gardner, 1999). Cross 등(2000)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 문화차로 인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도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집단 소속감이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의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성으로 개

념을 구분하였다.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성은 집단에 주어지는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개인의 요구보다 집단의 요구를 따른다. 반면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성은 집단의 관계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에서 자아를 정의할 때 타인을 포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특정 사회적 역할을, 후자는 2차적 친밀한 관계 형태를 의미하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Markus와 Kitayama (1991)가 정의한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성과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성으로 구분한 점은 심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문화 심리학자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이 더 독립적이며 집단주의 문화권이 더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관계적이라고 주장한다(Cross & Madson, 1997; Cross et al., 2000; Cross, Morris, & Gore, 2002; Markus & Kitayama, 1991). 여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 경험의 양상이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는 다른 자아해석 양식을 구성한다고 하였다(Cross & Madson, 1997).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속에서 경험한 내용에 근거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조직화하는데 자아해석이 폭넓게 영향을 미쳐 정서, 사회적 행동, 인지적 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Cross & Madson, 1997). Kashima 등(1995)은 호주인, 미국인, 하와이인, 일본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아해석의 개별성, 집단주의, 관계성의 측면에 나타나는 문화차와 성차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별성, 집단주의에서는 문화차가 나타났고, 관계성에서는 성차를 보여, 문화차를 반영하는 자아해석 측면과 성차를

반영하는 자아해석 측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인만이 관계(relatedness)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의미하는 ‘정’과 ‘우리’와 같은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 성별에 관련 없이 한국인 자신을 정의하는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영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여자에게만 관계성을 강조하여 성차가 두드러지지만, 한국 문화는 남녀 모두에게 관계성을 강조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탐색한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남녀는 관계적 자아를 중요시하지만, 관계지향 정도,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등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후, 이에 근거해 관계적 자아를 도구성과 표현성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남자는 도구성이, 여자는 표현성이 강조되었다고 밝혀, 관계적 자아가 남녀에게 중요하지만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한국문화권에서는 표면적으로 관계성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지만, 관계성을 중시하는 이유와 목적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이는 또한 자아해석 양식이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미치는 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제외하고,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개념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관계적-상

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표기한다.

### 심리적 안녕감

모든 인간은 문화의 가치체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해야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김동직, 1999).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 심리적인 적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Cambell, 1981). 독립성이 필요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는 독립성을 보이고, 상호의존성이 요구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는 상호의존적 특징을 보여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느낄 수 있다. 특정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해석해야 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m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개인이 삶의 만족도를 보통 주관적 안녕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심리적 안녕감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심리적 적응을 잘 한 사람이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고 하였다. Ryff(1989)가 정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지각이 있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6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삶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수용성(Self-Acceptance), 자기의 삶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질적으로 높은 대인관계 능력인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으로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지속적인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지각으로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Autonomy)의 6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의 가치체계에 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할 때 개인은 심리적인 적응을 경험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폭 넓은 의미를 반영하지 못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 단계와 인간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심리적 안녕감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독립적이면서,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자아해석 양식은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였고, 집단주의 문화권

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다른 개념인 사회적으로 관여된 정서(socially engaged emotion)가 삶의 만족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Diener, 1995; Kitayama & Markus, 2000; Suh, 2002).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요시하는 자아해석 양식은 다르며, 어떤 자아해석 양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적응적인 사회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Kwan, Bond와 Singelis(1997)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자아존중감과 관계조화가 이들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모형을 설정한 후 홍콩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를 산출하는 정보처리 과정은 문화보편적이며, 그 예측변인들의 효과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관계 조화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더니, 홍콩 대학생에게는 두 경로가 모두 유의미했지만 미국 대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 경로만 유의미했다. 다시 말해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관계 조화 모두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나 문화에 따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독립적·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모두 삶의 만족도의 예측 변인이지만, 문화에 따라 관련성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이며, 예로부터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여가활동, 여가 동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성장하려는 자기향상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정서

가 높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덜 행복하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6). 즉, 자기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중요시하고 자기 성장에의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세대별 지각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밝혀 한국인의 경우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2003)이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를 연구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목표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으나, 대인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해 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자아해석양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으며, 매개변인의 종류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특성을 표현할 때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조화롭게 맺을 때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관계성에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관계를 맺는 중요성과 의미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아,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해석 양식에서 성차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고, 자아해석 양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한 모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

Singelis, Bond, Lai와 Sharkey(1995)는 집단주의나 개인주의 문화와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보다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평가적 감정으로 관계 맥락이 포함되지 않아 Singelis 등(1995)의 주장처럼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사회적으로 관여된 정서나 관계조

화와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매개변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둘 간의 매개변인을 가정하지 않았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나(Singelis 1994; Cross et al., 2000), 본 연구의 상관 분석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 이 둘 간의 상관을 가정하였다( $r = .273, p < .001$ ). 본 연구의 가설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 자아해석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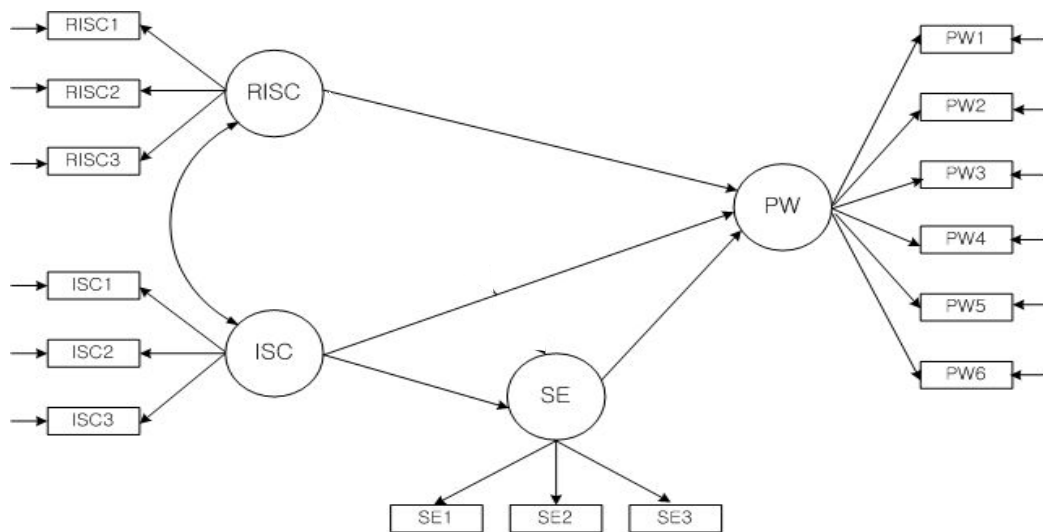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의 가설 모형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329명이었다. 이 중 질문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21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 30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158명, 여자 15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2.56(SD = 2.13)세였으며, 남자는 23.21(SD = 2.19)세, 여자는 21.89(SD = 1.86)세였다.

### 연구도구

####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Cross 등(2000)이 만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척도(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cept Scale: RISC)는 자아를 정의하는데 있어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포함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기존의 독립적 자아해석,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가 집단주의에 기반하여 관계성을 측정한다면 RISC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지경, 김명소, 2003). RISC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이었고,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점(매우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78로 나타났다.

####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

독립적 자아해석은 Singelis(1994)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cept Scale) 중에서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를 정의할 때, 자신의 내적 생각이나 정서,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속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6점 평정 척도(1: 매우 아니다, 6: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이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Guttman 모델에 근거하여 고안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피험자가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이다(송지원, 1997).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송지원(1997)의 자아존중감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2이다.

####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SB)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명



소, 김혜원, 차경호(2001)는 한국 성인 남녀 200여명을 대상으로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개념을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  $\alpha$ ,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차원으로 54개의 문항 중 46문항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등(2001)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6점 평정척도(1: 매우 아니다, 6: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남녀집단에서의 척도별 검증

성별에 따라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이 어떠한 관련성과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이 남녀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다집단 분석(multi-samp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려면 공변량 행렬이 분석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척도에 대해서 묶음(parcel)을 만들어 자료를 통합하여 잠재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남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비교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근사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으로 모형을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CFI와 NNFI 값이 .95 이상이고 RMSEA 값이 .06이하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하기위해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외 통계분석은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분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은 남녀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남녀별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차이 검증 결과

	남자(N=158)	여자(N=150)	t 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RISC	4.15(.67)	4.29(.58)	-1.92
ISC	4.11(.60)	4.01(.57)	1.66
SE	3.97(.47)	3.95(.51)	-.13
PW	4.08(.54)	4.05(.49)	.47

주.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분석

남녀 집단에 따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간 단순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과 .30에서 .38에 이르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은 .71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독립적 자아해석, 심리적 안녕감과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17, p <$

표 2. 남녀별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단순상관관계 결과

	RISC	ISC	SE	PW
남자(N=158)				
RISC	1			
ISC	.38***	1		
SE	.30***	.46***	1	
PW	.36***	.60***	.71***	1
여자(N=150)				
RISC	1			
ISC	.17*	1		
SE	.11	.35***	1	
PW	.19*	.42***	.75***	1

주.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  $p < .05$ , \*\*\*  $p < .001$

.05;  $r = .19, p < .05$ ),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의 다집단 분석

성별에 따른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상관분석에서 남자 집단은 여자 집단에 비해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간의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에 따라 자아해석 양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이론적 구조가 남녀 집단에서 동일한가를 검증하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남녀 집단에서의 가설 모형의 동등성 검증

남녀 집단에서 요인구조가 동일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형태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다시 말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하였다. 여자의 경우 관계 유지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Josephs, Markus, & Trafarodi, 1992; Stein, Newcomb, & Bentler, 1992). 한국 문화에서도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저모형에 관계적-

표 3. 남녀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NNFI	RMSEA(CI)
남자(n=158)					
기저모형	126.451	85	.996	.994	.056(.034, .075)
경쟁모형	125.323	84	.996	.994	.056(.034, .076)
여자(n=150)					
기저모형	140.819	85	.994	.991	.066(.046, .085)
경쟁모형	140.738	84	.994	.991	.067(.047, .086)

주. NNFI=비표준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을 가정하였다. 기저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남녀 집단에서 모두  $\chi^2$  차이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녀 두 집단에서 기저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 가능하였다<sup>1)</sup>. 남녀집단 모두 기저모형을 선택하여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 남녀 집단에서 이론적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이 남녀 집단에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어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기저 모형(모형 1)의  $\chi^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sup>2)</sup>. 그 결과, 모형 1과 모형 2의  $\chi^2$  차이

값은 18.592이고 자유도 차이 값은 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 N = 308) = 18.592, p = .069$ ). 모형 1과 모형 2의 NNFI와 RMSEA를 비교했을 때, NNFI와 RMSEA의 값이 거의 변화가 없어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sup>3)</sup>.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각 측정변인들이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 남녀집단에서의 가설 모형 적합도 비교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의 구조 동일성과 측정의 동일성이 만족되면, 남녀 집단 간의 특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두 집단의 특정계수 비교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과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에 경로계수를 동일화 제약한 모형을 비교하는 것으로

1)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할 때는 “간결의 원칙 (principle of parsimony)”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박광배, 2000).  
2)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 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chi^2$  차이 검증을 할 수 있다.

3)  $\chi^2$  차이 검증이 넓게 사용되지만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였다.

표 4.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NNFI	RMSEA(CI)
모형 1 : 형태 동일성(기저모형)	267.270	170	.993	.043(.033, .053)
모형 2 : 측정 동일성	285.866	181	.992	.044(.034, .053)

주. NNFI=비표준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

할 수 있다.

모형 3은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남녀 집단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독립적 자아해석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모형 4는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와 상관계수를 같다고 제약한 모형으로, 모형 3에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상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였다.

완전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특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하였더니,  $\chi^2$  차이 값은 5.784이고 자유도 차이 값은 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chi^2(4, N = 308) = 5.784, p = .216$ ). 즉, 자

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형 3과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chi^2$  차이 값은 5.584이고 자유도 차이 값은 1로 유의도 수준  $\alpha = .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chi^2(1, N = 308) = 5.584, p = .018$ ). 이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간의 상관계수가 남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의 표준화된 상관 계수를 살펴보면, 남자가 .491( $p < .001$ )이었고 여자는 .209( $p = .051$ )였다. 여자에 비해 남자 집단에서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간의 관련성이 보다 강함을 의미한다. 이 경로 외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은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NNFI	RMSEA(CI)
모형 2 : 측정 동일성	285.866	181	.992	.044(.034, .053)
모형 3 : 경로계수 동일성	291.650	185	.992	.043(.034, .053)
모형 3 : 경로계수와 상관계수 동일성	297.234	186	.992	.044(.035, .053)

주. NNFI=비표준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

표 6.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Parameter)	남자	여자
RISC → PW	.033(.014)	.527*(.143)
ISC → PW	.507*(.231)	.076(.033)
ISC → SE	.425***(.642)	.279***(.424)
SE → PW	2.400***(.724)	3.113***(.886)
RISC ↔ ISC	1.941***(.491)	.590(.209)

주. 괄호 밖의 숫자: 비표준화 추정치, 괄호 안의 숫자: 표준화 추정치.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 p < .05, \*\*\* p < .001

남녀 집단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에 대한 기저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하면 자아존중감이 증가되고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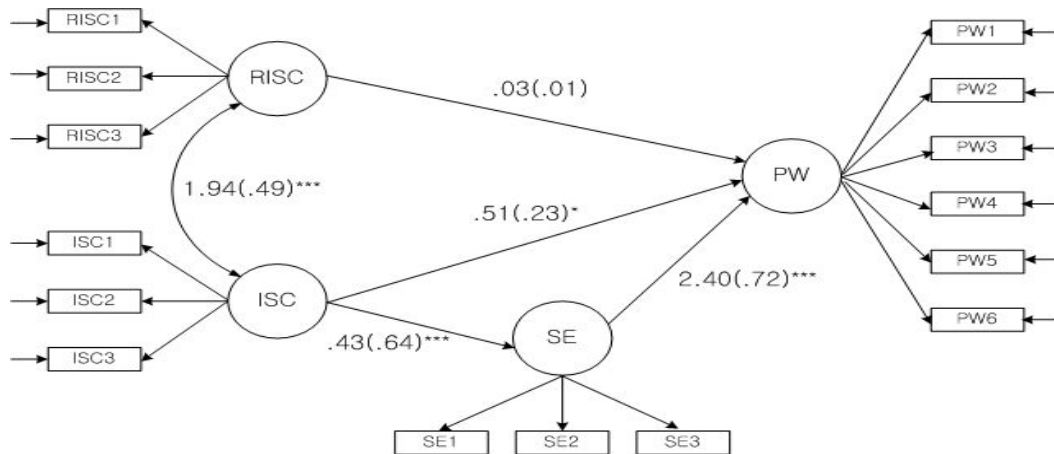


그림 2. 남자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괄호 밖의 숫자: 비표준화 경로계수, 괄호 안의 숫자: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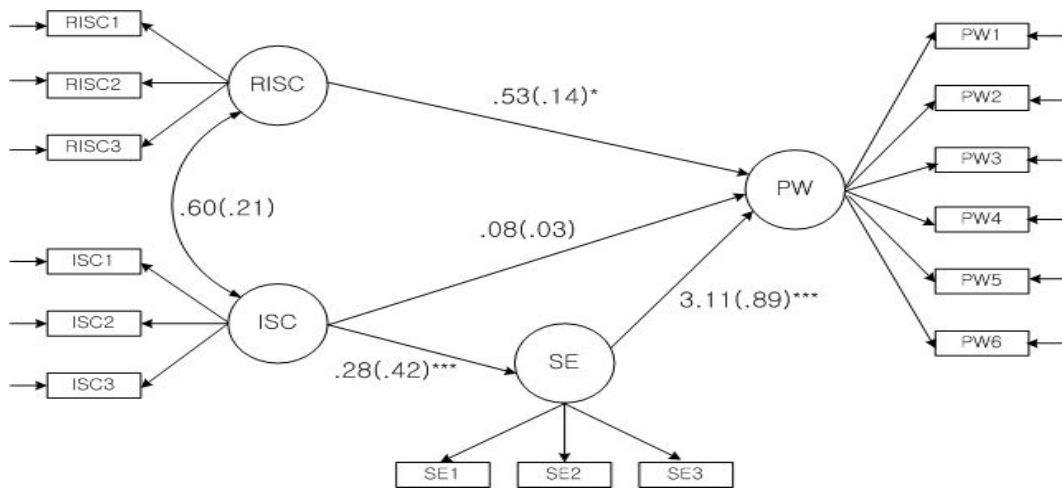


그림 3. 여자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

RISC=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ISC=독립적 자아해석, SE=자아존중감, PW=심리적 안녕감  
 괄호 밖의 숫자: 비표준화 경로계수, 괄호 안의 숫자: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  $p < .001$

하지만,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집단의 기저모형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여자의 경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고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상승되지만,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와는 다르게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의 기저모형이 그림 3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쳐 문화에 따라 두드러지는 자아해석 양식이 있듯이 동일 문화권에서는 성별이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강조하는 자아해석 양식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남녀에 따라 자아해석 양식이 다르면 자아해석이 심리적 기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과정에서도 성차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남녀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남녀 집단에 모두 적용 가능한 모형을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경로에서의 남녀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서 남녀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관계적이고 남자가 더 독립적이라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Cross & Madson, 1997; Cross et al., 2000). 이는 한국인만이 관계성에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던 Kashima 등(199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 특성을 살펴본 김지경과 김명소 연구에서 Cross 등(2002)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온 우리 문화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적응적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독립적 자아해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대 한국 문화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요구하고 개별성, 자율성, 독립성의 특징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현대 한국 문화에서는 전

통적인 인간관계와 청소년기의 독립성 강조가 공존하여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에서 성차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동직, 1999; 김의철, 박영신, 2004).

남녀 집단에 따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다른 척도들간 상관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다지 큰 상관이라고 볼 수 없어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비교적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Singelis, 1994; Cross et al., 2000).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elis et al., 1995; Kwan et al., 1997). 즉, 여자의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으며(Josephs, et al., 1992; Stein, Newcomb, & Bentler, 1992), 독립적 자아해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 독특성을 발휘하고 자기를 표현할 때 자아존중감이 고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Cross 등(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Cross 등(2000)은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 두 척도간의 독립성을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의 남자집단에서는 두 척도간의 직교성이 뚜렷하지 않아 두 자아해석 개념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와의 달리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자아해석 뿐만 아니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한국 남자에게 관계적인 측

면과 독립적인 측면을 모두를 강조하여 나타난 결과로, 독립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적 상호의존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아의 관계적 측면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남자에게는 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중심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경, 김명소, 2003). 또한 한국 남자의 경우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구분되지 않고 복잡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남자 집단에서 자아해석 양식이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자에 비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경로로 가정한 모형을 남녀 집단에 비교하였다.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성별에 상관없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형은 남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적 자아해석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처리과정임을 밝혔다. 따라서 남녀에게 두 종류의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의 결정과정에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해석 모형의 경로 및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더니, 남자 집단에서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외의 제안된 변인간의 경로계수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두 집단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비교했을 때, 남녀집단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효과가 성별에 상관없이 심리적 안녕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경로임을 시사해 준다. 남녀에게 독립적인 특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게 함을 의미한다. 독립성과 주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능력, 재능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자아존중감이 고양되며, 결국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종류의 자아해석이 성별에 관련 없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지만,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주었다.

이상의 다집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한 사람이 자아존중감도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느끼며,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자신의 독립성과 주도성을 유지하고 느끼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여자의 경우,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해서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남녀 대학생에게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의 처리과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 두 가지 자아해석이 개인내에 공존하고 있지만 남녀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자아해석 양식이 미치는 영향력과 그 패턴이 다름을 의미해 주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변인만큼 성별 변인도 자아해석에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아해석 관련 연구들은 자아해석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로 다루었으며, 남녀집단에 따른 자아해석 양상에 대해서 주되게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아해석을 남녀간 비교를 해 보아 심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폭 넓게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관적 안녕감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와 인간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행복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주관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을 확인해 삶의 만족도를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자아해석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남녀 집단에서 적용 가능한 심리적 안녕감 모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수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처리과정이 성별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과정임을 규명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남녀 집단에 따라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 가정하지 않아 그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변인을 포함하여 남녀 집단에 따라 자아해석양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이 남자는 .71, 여자는 .75로 높게 나타나 두 종류의 구성개념이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중 자율성, 개인적 성장이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내용을 측정했을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변안한 척도들로 각 척도에 대한 구성요인이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의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를 충분히 반영한 자아해석,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해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7개 대학생들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한국 대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대학생만으로 한정 지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장시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243-263.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 (2003).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5-236.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2006). <http://www.encyber.com> 백과사전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방희정, 조혜자 (2003).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의 암묵적 표상. *미간행*.
- 송지원 (1997).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Psychological Bulletin*, 122, 38-4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o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5-37.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97-808.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99-418.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e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42-655.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Josephs, R. A., Markus, H. R., & Tr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itayama, S., & Markus, H. R. (2000). The

-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of sympathy: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13-161). Cambridge, MA: MIT Press.
- Kwan, V. S. Y., Bond, M.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Bond, M. H., Lai, S. Y., & Sharkey, W. F. (1995). *Unpackaging culture's influence on self-esteem and embarrassability. The role of self-construal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Stein, J. A., Newcomb, M. D., & Bentler, P. M. (1992). The effect of agency and communality on self-esteem: Gender differences in longitudinal data. *Sex Role*, 26, 465-481.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1 차원고접수 : 2006. 11. 5.  
심사통과접수 : 2006. 12. 14.  
최종원고접수 : 2006. 12. 21.

## Effect of Self-Construal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Hyunmi Kim<sup>1)</sup> Heejeong Bang<sup>2)</sup> Yukyoung So<sup>1)</sup> Jeung Ok<sup>2)</sup> Eunkyung Kim<sup>3)</sup>

1)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2) Ewha Womans University

3) College of Medicine Pochun CHA Univ. Bundang CGA General Hospital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s on psychological well-beings. Participants were 158 university males, 150 university females in Korea. First, gender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on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construal,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in the case of males, independent self-constru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at the independent and that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are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at the effect of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is mediated through self-esteem.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lso analyzed the result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through the multi-sample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the goodness of fitness of the proposed model was acceptable. Comparing parameter estimates, we found the effect of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as mediated through self-esteem in both group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 in males, whereas the influence of relational-independent self-constru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 in females.

*Key words* : Independent Self-Construal,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부록.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남자 N=158, 여자 N=150)

	RISC 1	RISC 2	RISC 3	IND E1	IND E2	IND E3	SE11	SE12	SE13	PW1	PW2	PW3	PW4	PW5	PW6
RISC1		.484	.552	.093	.059	.121	.161	.053	.120	.161	.155	.137	.185	-.044	.289
RISC2	.629		.625	.174	.124	.153	.114	.021	.058	.018	.204	.122	.229	-.089	.180
RISC3	.621	.631		.149	.065	.146	.123	.012	.048	.070	.184	.063	.198	-.114	.213
INDE1	.305	.350	.264		.606	.478	.258	.176	.201	.207	.156	.208	.217	.353	.193
INDE2	.214	.189	.161	.590		.535	.288	.177	.234	.132	.151	.273	.180	.409	.161
INDE3	.368	.333	.289	.561	.496		.300	.342	.326	.316	.216	.305	.392	.444	.231
SE11	.359	.179	.284	.319	.374	.332		.653	.566	.476	.461	.553	.452	.304	.544
SE12	.223	.134	.212	.380	.377	.291	.518		.575	.550	.371	.680	.393	.265	.563
SE13	.239	.082	.116	.252	.263	.229	.393	.437		.451	.317	.575	.476	.275	.461
PW1	.209	.190	.233	.439	.383	.431	.465	.481	.394		.320	.625	.427	.311	.567
PW2	.319	.291	.294	.355	.403	.489	.540	.496	.369	.603		.433	.375	.176	.552
PW3	.271	.190	.253	.398	.424	.429	.602	.592	.374	.712	.593		.494	.269	.600
PW4	.289	.216	.357	.231	.278	.332	.443	.450	.348	.468	.465	.519		.292	.495
PW5	.232	.187	.180	.423	.418	.378	.318	.330	.218	.467	.465	.464	.253		.199
PW6	.209	.170	.195	.388	.360	.448	.472	.455	.377	.660	.748	.630	.439	.403	

대각선의 왼쪽 아래쪽은 남자 상관값이고, 오른쪽 위는 여자 상관값임